

# 악기 종류에 따른 기능적인 연주복 디자인 연구

- 성인 여성의 하프 연주복을 중심으로 -

여 승 화\* · 정 삼 호<sup>+</sup>

애경 ·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A Study on the Design of Functional Playing Costumes

- Focusing on Female Harpist -

Seung-Wha Yeo\* · Sam-Ho Jung<sup>+</sup>

Lecturer, Dept. of Fashion, Aekyung · Lotte Department Culture Center\*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sup>+</sup>

(2003. 12. 11 투고)

### ABSTRACT

Stage costumes perform not only the instrumental but also the expressive functions. Th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functional and aesthetic costume designs for musical playe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struments, players' postures. . The scope of this study is restricted to the musical costumes for female adult soloists playing the wind and string instruments.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ory research, empiricalresearch and manufacturing a real costume.

First, theory research contains theory of musical costumes and that of pure musical areas. Concept, characteristics and wearing effects are analysed in theory of musical costumes. Second, designs of instruments and playing postures are analysed in the theory of pure musical areas. Proper and improper designs are compared based on the survey asking the favorite designs of 56 wind and string players. Third, I manufacture a stage costume for a harpis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nd and string players think the functionality of costumes more importantly than the esthetic sense.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design preferences for different playing postures.

Second, string players basically use arms, fingers and the upper body. Wind players use fingers more than string players and do abdominal breathing.

Third, string players think the design of arms and sleeves because of frequent usage of bow and prefer the design without sleeves. On the contrary, wind players think the silhouette importantly because of standing playing posture.

Fourth, players don't think that the accessory is not important and want it so long as it doesn't hinder playing.

Fifth, shoes plays more important role than costume in case of playing posture with using pedals and moving legs frequently.

Lastly, both wind and string players prefer the design with simplicity and comfort most.

Key words : stage costumes(무대 의상), musical costumes(연주복), string(현악기), wind(관악기), player(연주자), playing posture(연주 자세)

## I. 서론

연주복은 커다란 범주 안에서는 특수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복의 두 가지 기능 즉, 표현적 기능과 도구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특별한 의복으로 그 존재 목적과 가치가 매우 뚜렷한 의상 분야이다.<sup>1)</sup>

특히 악기의 연주 기술은 작곡된 음악을 훌륭히 표현해내는 창조적 행위이다. 연주자는 청중의 마음을 두드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청중과 공감을 형성하는 연주자체와 연주자의 마인드와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sup>2)</sup>

따라서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은 작곡자의 마음속의 음악적 이념이나 감상을 표현해내는 전문 기술이며, 그 음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연주자가 착용하는 연주복의 기능성은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주복 시장은 가격이 매우 비쌌 뿐 아니라 미적인 의도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현악기의 연주복은 성악이나 피아노 연주에 비하여 움직임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과 더불어 기능적인 조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종류의 연주 움직임과 연주 자세 등을 고려한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조화를 이룬 연주복의 제시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통하여 연주복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곳에도 보다 진보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연주자들 스스로에게도 본인의 악기 특성과 연주자세를 고려한 기능적 측면의 연주복 디자인에

보다 전문가적 상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현악기 연주자들의 연주 형태를 고찰하고 설문지 구성을 토대로 현악기 중에서도 신체 움직임을 가장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보여주는 하프 연주복의 기능적 디자인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현악기

현악기는 악기의 현을 활이나 손으로 주법에 따라 굽거나 뜯어서 줄(즉, 현)의 떨림(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연주 형태의 악기를 말한다.

다음은 현악기의 대표적 악기들의 연주시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중요시되는 연주복의 기능적 부분들을 알아보았다.

#### 1) 바이올린

가장 중요한 특징적 연주법의 하나로 올림 활과 내림 활이라 하여 활을 잡은 손목의 힘을 강약으로 조절하는 테크닉이 요구된다.<sup>3)</sup>

아래의 사진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 때의 사진이다.<sup>4)</sup>

<사진 1>의 사진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바이올린의 연주 시에는 가장 기능적으로 중요시되는 부분이 활의 사용이며 활을 내리 뺄 때는 움직임의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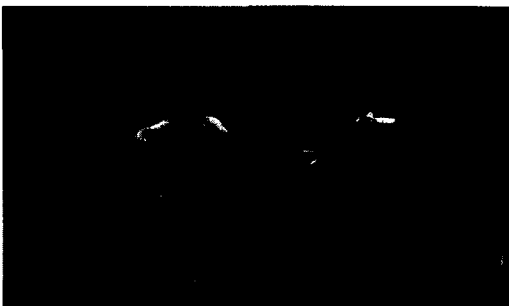
<사진 1> 정경화 바이올린 연주

에 따라 연주복 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연주복 진동돌래의 편안함이다.

따라서 진동부분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하여 소매부분의 여유량을 충분히 계산한 기능적 디자인을 한 다거나, 소매를 없앤 어깨 끈 드레스 형태의 연주복도 효과적인 디자인이다.

## 2) 첼로(cello)

<사진 2>는 첼리스트(Cellist) 장 한나 양의 연주 사진으로 앞에서 설명한 첼로의 연주자세를 뒷받침 하여 보여준다.<sup>5)</sup>



<사진 2> 장한나 첼로연주

첼로 연주자는 활을 잡는 오른손의 움직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연주복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오른 손 손목 부분의 유별난 치장이나 늘어지는 레이스 등의 장식은 연주의 기능성에 방해가 된다.

하체의 경우는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악기를 가운데에 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드레스의 폭은 넓은 것이 벌어진 다리 부분을 아름답게 감추어 줄 수도 있고, 연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리를 벌린 상태가 되지만, 특별히 연주를 위하여 다리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능상 드레스 길이의 제한은 없으며 오히려 심미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벌어진 다리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도록 다리를 완전히 덮는 길이의 디자인이 적합하다.<sup>6)</sup>

## 3) 콘트라베이스(contrabass)

콘트라베이스의 연주는 주로 선 자세로 이루어지게 되며 악기의 높이에 맞추어 높은 의자에 앉아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3>에서는 그 다양한 연주 형태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사진 3> 콘트라베이스 4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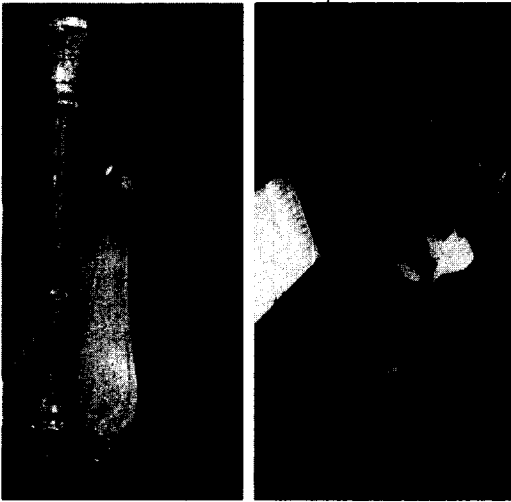
악기 아래 부분의 저음을 연주할 때에 상체가 많이 구부러져야 하므로 상체가 지나치게 압박되어 있는 디자인과 소재는 연주자에게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악기를 들고 입장하는 연주자를 감안할 때 연주복의 스커트 길이는 걸음걸이에 용이하도록 바닥 정도의 길이 보다는 발목 정도의 길이가 적합하다.

## 4) 하프(harp)

팔과 손의 사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다른 현악기들과는 다르게 페달(pedal)을 사용함으로써 다리 근육과 발의 사용이 더불어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하프는 연주시 양손을 사용하고 오른쪽 어깨에 악기를 기대고 현의 중앙부분에 양손을 껴안는 자세로 연주한다. 따라서, 손, 팔, 어깨의 사용이 다른 어느 악기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소매와 진동 돌래의 기

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발은 민첩한 페달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커트의 길이와 넓이의 기능성도 중요시된다.



<사진 4> 하프 연주(앞)    <사진 5> 하프 연주(뒤)

## 2. 연주복에 관한 고찰

### 1) 연주복의 개념 및 정의

공연 예술 의상에 포함되어 있는 연주복은 의상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특수복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현적 기능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복으로 일반 의상과는 다르게 시각을 위한 목적이 뚜렷한 분야의 공연 예술 의상이다.<sup>7)</sup> 음악은 공간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간은 시각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소리로 들려지는 청각적 감동과 예술성이 그것을 표현하는 시각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로 구성된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이 있으며 거기에 연주복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주복은 심미적인 부분의 예술성과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데 적절하도록 기능성을 높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2) 연주복의 착용 효과

연주자가 연주복을 착용하면서 나타나는 상승 효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 스스로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부각시킨다.

둘째, 연주되는 곡의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려준다.

셋째, 관객에게 청각적 음악의 전달 외에도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청취자로서의 감동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연주자가 연주복을 착용하여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주시의 악기에 따른 신체적 움직임 최대한 고려하는 기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기능적인 부분의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무대 위의 음악적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 3) 현악기 연주복의 악기별 기능성

현악기 연주복에 있어서 기능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소매 및 진동둘레, 스커트 길이, 스커트의 폭, 전체적인 실루엣과 장식적 요소 등이다. 다음은 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악기 연주복의 기능적 특징들을 악기별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 (1) 바이올린

오른손으로 활을 잡아 왼손에 지탱한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형태이므로 진동부분의 움직임이 가장 많다.<sup>9)</sup> 따라서, 손과 팔, 어깨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매를 없앤 디자인을 선호하는 연주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상체의 움직임만으로 연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커트의 길이와 폭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2) 첼로

연주시 두 무릎을 벌린 상태로 악기를 오른쪽 어깨로 지탱하고 오른손 활을 사용하여 연주하므로 손목 부분의 장식이 연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리를 벌린 상태의 연주 형태를 감안하여 스커트의 폭은 좁지 않게 디자인하여야 하며 스커트의 길이는 발목 길이 정도가 적당하다.

(3) 콘트라베이스

활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악기 중에서 악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체가 가장 많이 구부러져 연주를 하게 되므로 상체부분에 적당한 여유분이 있는 디자인이 적합하다. 무대 입장시 악기를 직접 들고 입장하는 경우에 스커트의 길이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적당하다.

(4) 하프

현악기 중 유일하게 상체의 사용 뿐 아니라 페달의 조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발과 다리의 움직임이 있다. 7개의 페달을 음이 바뀔 때마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진동부분의 중요성 외에도 스커트의 길이와 폭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페달의 사용이 자유롭도록 스커트가 좁아서는 안되지만, 지나치게 넓으면 앉았을 때 여분의 넓이가 길이로 떨어져 페달 사용에 방해가 되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은 전국적으로 구성원들이 극소수인 제한점 때문에 3명의 설문지만이 회수되었으나 개개인에게 집중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제한점을 최소화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이다.

<표 1> 설문지 구성

설문	측정변수	문항번호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 경력, 전공악기	1,2, 3번
신체 움직임	전공악기와와의 관련성	4번
연주복 선택기준	기능성, 가격,유명도, 기능성이 요구되는부위	5,6,9번
연주시 장애요인	신체움직임과 연주복과의 관련성	7, 8번
연주복의 부분적 디자인	장식및디테일,소매유무, 페티코트선호도,신발높이선호도	10,11,12, 13,14,15번

Ⅲ. 실증적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 1) 현악기 중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의 연주 형태와 관련한 신체 움직임을 분석하여 기능적 연주복 디자인을 제시한다.
- 2) 각 악기들의 연주 형태, 신체 움직임, 연주복의 기능적 변인에 관한 선호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3) 현악기 중 신체 움직임이 가장 다양한 연주 형태를 가진 하프 연주자의 기능적 연주복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실물 제작한다.

2. 연구 대상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설문은 현악기의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되었다.

대전시립 교향악단과 서울시립 교향악단을 대상으로 총 45부의 설문지가 작성되어 최종 분석 결과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물 제작을 하기 위한 하프 연주자들

신체 움직임은 악기별로 연주시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에 변수를 두어 악기별로 다른 연주복 디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연주복 선택기준으로 연주자들이 기능성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정을 하였다. 또한 연주시의 실제 불편 경험사례를 주관적으로 적도록 하여 연주복 디자인의 기능적 단점을 알아보는 의도를 포함하였으며 신발과 장식적 부분과의 기능적 연관성을 알아보는 설문들로 구성되었다.

3. 설문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별로는 31~35세의 연주자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협연이나 독주회의 경력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전공 악기의 분포도는 바이올린 25명, 첼로 10명, 콘트라베이스 6명, 하프 3명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관현악단 내의 악기 편성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신체 움직임

악기 별로 연주 방법이나 특징이 다르므로 응답자

에게 본인의 악기 연주시 움직임이 많은 신체 부위를 전부 체크하도록 하였다.

팔, 손가락, 상체 전체, 발, 다리, 얼굴과 목 부분 등의 여섯 개의 보기 문항을 주어 본인의 연주 형태를 고려하여 중복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악기라도 본인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주관성을 감안하여 의도하였다.

다음의 <표 2>에서는 현악기 연주자의 신체 움직임을 정리해 보았다.

<표 2> 현악기 연주자의 신체 움직임

	신체 움직임								합계		평균	
	팔	손가락	상체	발	다리	얼굴	목	합계	%	합계	%	
바이올린 (25)	21	84	18	72	4	16	1	4		3	12	
첼로 (10)	10	100	7	70	1	10		1	10	1	10	
콘트라베이스 (6)	3	50	3	50	5	83						
하프 (3)	3	100	3	100			3	100	3	100		

현악기의 신체 움직임을 살펴보면 바이올린과 첼로는 팔과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70%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하였으며 특히 팔의 사용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팔의 사용을 보다 중요시하는 연주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0% 정도의 응답자가 상체 전체와 얼굴과 목 부분의 사용에 대한 응답을 하였으며, 발과 다리의 움직임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이것은 본인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콘트라베이스의 경우는 팔과 손가락의 움직임보다는 상체 전체의 움직임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콘트라베이스는 서서 연주하는 형태로 악기를 껴안아 연주하게 되므로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연주 중에도 자연스럽게 상체의 사용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보다는 많은 것으로 해석 된다.

하프는 현악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페달을 사용하는 악기이기 때문인지 응답자 3명 전원이 팔과 손가락, 발, 다리 네 문항의 신체 움직임에 전부 응답하였다.

3) 연주복 선택 기준

연주자들이 평소에 연주복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

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보기 문항은 기능성, 심미성, 개성, 유명도 및 가격에 대한 다섯 가지 문항을 정해 연주자의 선택 기준을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연주자 모두가 기능성에 대한 선택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이 심미성, 개성, 가격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선택을 보인 것이 연주복의 유명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주복의 유명도는 이름 있는 디자이너나 매장의 선호도를 나

타낸 것인 만큼 유명한 디자이너나 매장에서 따로 연주복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연주복 제작 실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기능성에 앞서 개성과 심미성을 보다 우선 선택기준으로 응답한 소수의 응답자들도 각각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는 기능성을 꼽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취향이 뚜렷하게 타인과 구별되거나 미(美)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한 소수의 연주자들도 연주복의 기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 연주복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

연주복은 연주시 움직임이 많은 옷이며 그 움직임을 불편 없이 잘 소화해내는 것이 곧 기능성이다. 연주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주복의 기능적 요소를 알아보는 설문 결과, 현악기 연주자들은 소매 및 진동부분의 기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 형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5) 연주복 불편 원인

연주복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던 직·간접적인 경험의 유무를 묻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불편함

인지를 보기 문항 없이 주관적으로 쓰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 82%의 응답자가 연주복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45명의 응답자 중, 33명이 구체적 불편요소에 관해 응답하였고 그 결과, 소매 및 진동, 치마폭과 길이, 어깨 끈, 기타 소재, 장식, 사이즈 등의 원인 순서로 나타났다. 이것은 악기의 연주 형태에서 기능성의 중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6) 스커트 길이

설문 결과, 응답자 중 60%가 바닥 정도의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의 응답자가 발목 정도의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목할 만한 이 두 가지 응답 결과의 전공 악기들을 비교해 본 결과, 하체의 신체움직임을 가진 첼로나 하프 연주자는 발목 길이를, 하체의 신체 움직임이 없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바닥 길이를 선호하였다. 이것은 다리의 신체 움직임을 가진 연주 형태가 연주복 스커트 길이와의 기능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는 발목길이와 바닥 길이의 스커트 길이를 악기별로 비교해보았다.

<표 3> 스커트 길이와 악기의 비교

악기	스커트길이	발목 길이	바닥 길이	기타길이
바이올린 (25)	0	7 (28%)	16 (56%)	1 (4%)
첼로 (10)	0	9 (90%)	1 (10%)	0
콘트라베이스 (6)	0	3 (50%)	3 (50%)	0
하프 (3)	0	3 (100%)	0	0

7) 소매

진동 부분의 기능성과 소매와의 영향이 있는지, 실제 연주자들은 소매가 있는 디자인과 없는 디자인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 4>은 소매의 선호도를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선호도 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 4>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활의 사용이 많은 현악기가 팔의 움직임이 보다 크고, 그로 인해

<표 4> 소매 선호도 분포

소매유무	선호도	현악기(45)	
		빈도(명)	백분율(%)
소매없음		31	68
소매있음		7	15
상관없음		6	13
기타		1	2

진동, 소매 부분의 기능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주자들은 연주복의 소매가 없는 디자인을 선호하며 진동 부분의 기능성을 연주복 소매 디자인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연주복의 부수적 요소

연주복의 부수적 요소가 연주 형태와 기능성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하였다. 여기서는 그 부수적인 요소를 장식과 패티코트, 신발 등으로 구체적인 선호도와 악기 연주 형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1) 장식

앞에서 연주복의 기능성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를 묻는 설문에서는 장식적 요소가 기능성과의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식 자체의 선호도와 장식이 선호되는 연주복의 특정 부위를 알아보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3%의 연주자들이 스커트 밑단 부분의 장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 부분의 장식을 가장 적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악기 중에서도 하프 연주자들은 가슴 부분, 어깨 부분, 기타의 다른 부분 등을 각각 33%의 연주자들이 선호하였다.

(2) 패티코트

패티코트는 연주복의 드레스에 풍성한 볼륨과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드레스 안에 받쳐입는 속옷을 말한다.<sup>10)</sup>

그러나, 악기 연주자들에게는 기능성보다는 심미성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는 추정 하에 패티코트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패티코트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일부 악기 연주형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연

주자들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신발

심미적인 의미로 흔히들 의복의 완성을 신발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무대 의상의 장식적 요소에서도 신발의 의미는 중요하다.

그러나 연주복에서 착용하게 되는 신발은 장식적 요소의 심미성보다도 기능성의 조건으로 보다 중요하게 해석 할 수 있다.<sup>11)</sup>

특히 연주 형태상 페달이나 발의 움직임이 있는 악기에서는 연주복 이상의 보다 큰 기능적 의미를 갖는다. 굽이 낮은 신발을 선호하는 연주자들의 이유는 본인의 키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편안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반대로 굽이 높은 신발을 선호하는 연주자들은 본인의 키가 작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보기에 좋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굽이 높은 신발의 선호 이유가 전부 심미적 측면에 의한 것인 반면에 굽이 낮은 신발의 선호 이유는 편안함으로 해석된 기능적 측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9) 연주복의 종합적 이미지 선호도

설문의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연주복 소견을 알아보았다.

즉, 연주자가 입고 싶은 연주복에 대한 구체적인 견을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쓰도록 하여 그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연주자들은 편안하고 심플한 느낌의 연주복 드레스를 가장 높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기능성파도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며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심플함>이라는 단어도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응답자들은 연주복의 기능성을 심미성에 앞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주복은 기능성의 중요성을 최대한 살리는 바탕안에서 심미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IV. 연주복의 실물 디자인 및 제작

앞에서 현악기와 관악기의 연주 형태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연주자들을 통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주의 기능성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연주복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 작업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현악기 중 하프 연주자의 연주복을 실물·제작하였다. 하프의 연주복을 선택한 기준은 연주 형태가 단조로운 관악기에 비하여 현악기가 비교적 연주 형태와 그와 관련한 신체 움직임이 다양했기 때문이며 현악기 중에서도 하프 연주자들의 신체 움직임이 손과 팔을 포함한 어깨와 발, 다리의 움직임으로 가장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2)</sup>

### 1. 제작 연주복의 디자인 및 패턴 의도

첫째, 하프라는 악기의 특성 및 연주 형태를 고려한다.

둘째, 하프 연주자들의 연주시의 신체 움직임을 고려한다.

셋째, 하프 연주의 기능성을 높이면서 연주복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디자인을 의도한다.

기능성을 살려 제작한 하프 연주복의 디자인과 패턴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디자인의 기능적 효과

하프의 연주 형태와 신체 움직임을 고려하여 팔과 어깨, 진동 부분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소매가 없는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악기가 오른쪽 어깨 부분에 밀착되어도 맨살에 밀리는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어깨 부분은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디자인을 하였다. 그리고 페달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와 발의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도록 스커트의 길이와 넓이를 조절하였다.

#### 2) 디자인의 심미적 효과

연주자 본인의 개인적 취향을 고려하여 네크라인을 깊게 파지 않았고 무대위에서 관객에게 보여지는 3/4각도를 감안하여 앉았을 때 복부 부분이 어색하게 보이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전체적 실루엣은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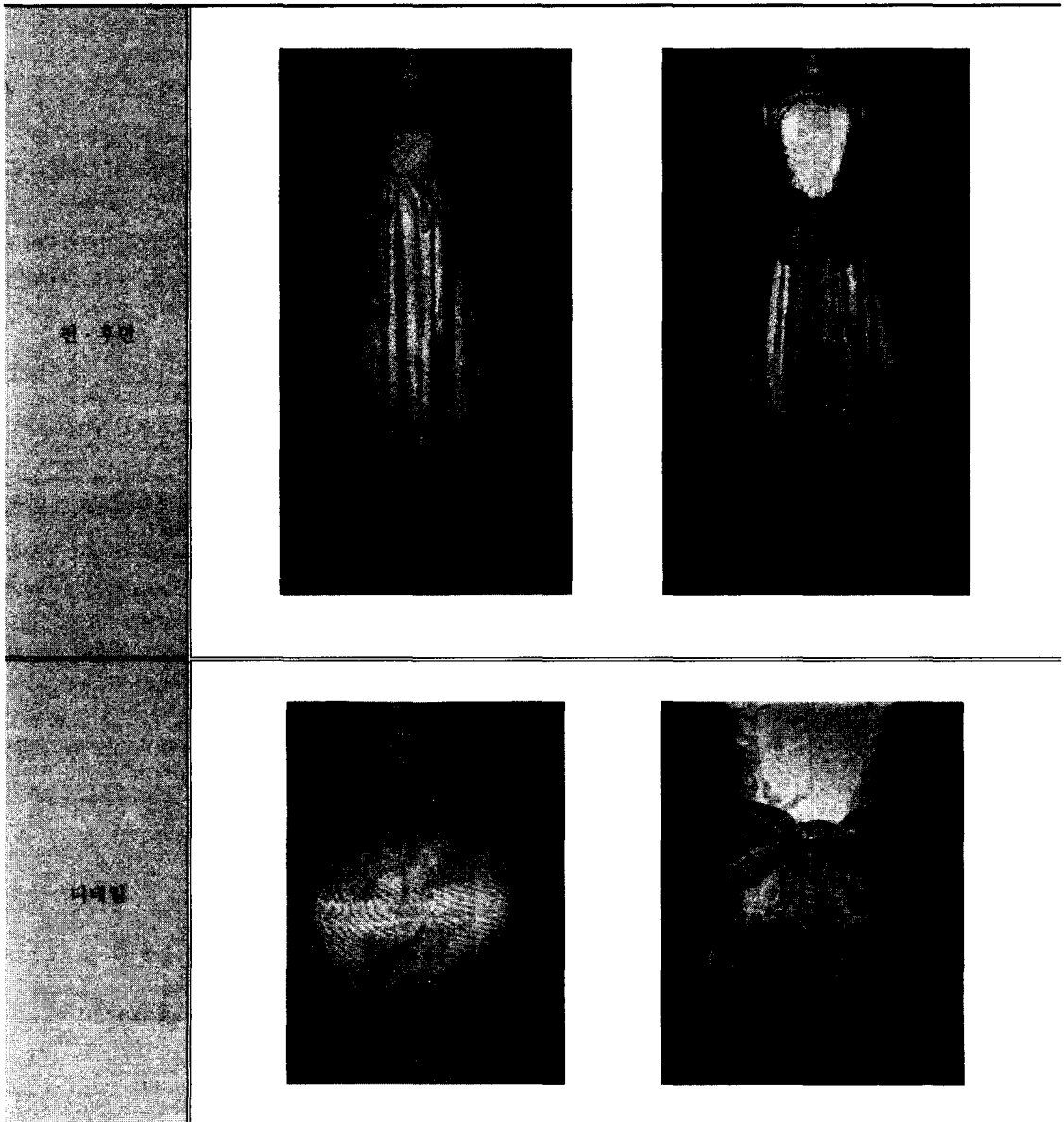


리선을 높인 하이 웨이스트 디자인을 하였다.

뒤판 허리부분에 같은 천의 커다란 리본을 달아 심미성을 더하였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조명 효과를 얻기 위하여 드레스의 앞판 부분과 스커트는 비즈가 달린 천을 이중으로 사용하였다.

## 2. 제작 연주복의 실물 제시

<표 5> 제작 연주복의 실물 제시



## 3. 제작 연주복의 착장 및 연주 실물

다음의 <사진 8>과 <사진 9>는 하프 연주자의 제작 연주복 착장 및 연주 사진이다.



<사진 8> 연주복 착장 및 연주1  
<사진 9> 연주복 착장 및 연주2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와 악기들의 연주 형태 및 특성 등을 종합·분석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악기 연주자들은 모두 연주복의 심미성에 앞서 악기와의 적합성과 연주 형태의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주 형태에 따라 선호하는 연주복의 기능적 디자인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현악기 연주자들의 신체 움직임은 악기의 연주 형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하프 연주자들은 상체 움직임 외에도 발과 다리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셋째, 연주 형태와 관련하여 활의 사용이 많은 현악기 연주자들은 소매와 진동 부분의 기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는 각 악기 연주 형태의 영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능성과 관련하여 연주자들은 연주복의 부수적인 요소, 즉 장식에 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고 본인의 연주 형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장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주복의 부수적인 요소에서도 신발은 일부의 페달을 사용하거나 발의 움직임이 있는 연주 형태와 관련하여 연주복 이상의 기능적 측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악기 연주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연주복의 전체적인 느낌으로 <심플함>과 <편안함>의 기능성을 가진 연주복 드레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론 연구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악기 연주자들의 연주복은 기능성을 심미적인 측면 보다 중요하게 이해하고 기능적 측면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심미적 측면까지 조화롭게 소화해 내는 연주복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하프 연주복의 제작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프는 악기를 오른쪽 어깨에 지탱하고 신체 움직임은 팔, 손가락과 페달을 사용하므로 발, 다리의 사용이 많다.

둘째, 연주복 디자인의 기능적 효과로는 소매 및 진동 부분의 기능성과 어깨와 악기가 밀착되는 부분의 기능성, 페달 사용을 위해 스커트의 길이와 넓이의 기능성이 중요하다.

셋째, 기능성의 고려와 함께 디자인의 심미적 효과로는 연주자 본인의 개인적 취향을 고려하고 조명 효과를 위한 비즈의 사용과 관객에게 보여지는 연주 각도를 고려하여 기능성을 방해하지 않는 뒤 허리 부분의 리본 장식을 하였다.

## 참고문헌

- 1) 임지현 (1993). 무대의상 디자이너 양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15.
- 2) 민유경 (2003). *The strade*.
- 3) W. Piston, 토다쿠니오 역. (1967). 관현악법. 음악지우사, pp. 36-64.
- 4) 자료출처 <http://www.press.sac.or.kr>
- 5) 자료출처 <http://www.han-na.pe.kr>
- 6) 이연희 (1999). 연주복을 중심으로 한 공연 예술 의상 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3-59.
- 7) 박성울 (2002). 연주복 선호 디자인에 따른 패턴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 8) 위의 책, p. 4.
- 9) 이연희 (1999). 앞의 책, p. 47.
- 10) 박성울 (2002). 앞의 책, pp. 18-19.
- 11) 위의 책, pp. 19-20.
- 12) W. Piston, 토다쿠니오 역 (1967). 앞의 책, pp. 36-351.